

## 벨기에 브뤼셀 보고시안재단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展

6 March, 2016 | 이향휘 기자

---



하종현 作

국제갤러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보고시안 재단의 빌라 영팡에서 '과정이 형태가 될 때 :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4월 24일까지 연다.

지난해 5월에도 보고시안 재단과 협력해 베니스 비엔날레 병행 전시 중 하나로 단색화전을 진행한 국제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 주요 화단에서 지속적으로 단색화에 대한 관심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열고 있는 전시에선 권영우 김환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의 1970~1980년대 작품 50여 점이 소개된다. 국제갤러리는 단색화의 전개 과정을 알리기 위해 전시장에 아카이브 공간을 만들어 단색화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서적, 전시 도록과 포스터 등 관련 자료를 비치했다.

전시 기획은 킬 펠라스, 샘 비더윌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외 기획자들이 맡았다.

보고시안 재단은 아르메니아 출신 보석세공사 로베르트 보고시안과 그의 두 아들이 1992년 설립한 비영리 문화재단이다.